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푸코를 위하여^{*} —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

최정운^{**}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이미 1970년대 중반에 근대서구의 인간에 대한 실증 과학 분야들이 17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형태의 권력(power, pouvoir)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서양 철학 전통에서 커다란 충격이었다. 지식이란 소크라테스로부터 폭력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지식과 이성(理性, reason)은 철학의 이상(理想)이었다. 반면 권리이란 동·서양 철학에서 공히 인간의 사악함과 연관된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필요악(必要惡)으로써 자유의 대상이 되어왔다. 푸코의 이러한 지식과 권리의 연결은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이었고 따라서 그는 보통 근대서구와 이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던(post-modern)주의자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푸코의 주장에 이은 새로운 연구나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 학술적 논쟁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푸코의 주장은 여러가지 면에서 후학들에게 감당할 수없는 부담을 주었다. 우선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에 소화하기 힘들었고, 나아가서 푸코의 주장은 서양 문명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좌충우돌의 포괄적인 비판이었다. 그가 제시한 지식과 권리의 관계는 지식과 권력을 모두 비판하고 있으며 이 비판은 어떤 명시적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없을 때이다. 이 글은 푸코가 그의 권력 이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목은 무엇인가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나아가서 그의 모순과 한계를 검토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가 정리되고 나면 실제로 푸코가 의도했던 또는 초점을

* 1999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

** 서울대, 외교학과

맞추었어야 했던 비판은 무엇이며 이는 실제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천적 제안을 탐색할 것이다.

I .

우선 푸코는 권력에 대하여 명목론(nominalism)의 입장을 취한다. 말하자면 그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권력’으로 불렸던 권력, 예를 들어 국가권력, 주권(sovereignty)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권력의 형태로 이해되지 않았던 각종 관계에 ‘권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 관계, 선생-제자, 의사-환자 관계 등, 일반적으로 ‘사랑’을 핵심으로 이해했던 관계들을 권력으로 보여주었다.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수많은 관계들을 권력이라 이름 붙임으로써 이들 관계들이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푸코는 서구 사회의 온갖 다른 ‘좋은 이름’으로 불리던 관계들을 권력으로 착색(着色)하여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회 전체를 통해 분포되어 움직이고 있는 권력 관계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여주었다. 온갖 규율 권력 기관들은 ‘군도’(archipelago)를 이루어 사회 전체에 ‘모세혈관’(capillary) 같은 권력의 그물망을 뻗치고 있으며 성(性, sex, sexuality)과 관련된 권력에 의해 서구 사회는 온통 ‘성으로 포화(saturated)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 이래 서구인들은 이러한 권력 관계 속에서 자라며 권력에 의하여 그들은 정체성(identity)과 주체성(subjectivity)를 부여받는다. 이렇듯 푸코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체로서 강한 비판적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서 푸코의 이러한 그림은 그간 사회과학에서 독자적인 존재라 여겨지고 민주주의의 궁극적 담지자로 여겨졌던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자본주의 국가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다. ‘권력’이라는 말이 갖는 악마적 의미로 푸코는 서구 사회를 읊울하고 불길한 색채로 그려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푸코가 보여주는 그림은 독자들에게 근대서구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이는 실증적 역사이며 푸코는 역사가와 비판 철학자의 두 입장 사이에서 숨박꼭질을 하고 있다. 푸코는 권력의 편재성, 온 사회가 권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자체에 대해,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해방론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사상은 전형적

인 근대 권력의 산물임을 지적한다. 근대 권력의 특이성은 인간의 생명의 힘과 욕망을 확대하며 따라서 해방의 꿈은 근대 권력이 창조한 서구인들의 전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근대서구의 자유주의 이념은 권력이 자신의 활동 공간을 넓히기 위해 창조한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푸코는 단적으로 ‘권력 없는 사회’란 허구 일뿐이라고 해방론자들에게 일침을 놓는다. 푸코는 어떤 종류의 사회에도 권력은 존재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그는 근대서구에서 발달한 권력은 독특한 유형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 푸코는 온 사회를 권력의 장으로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권력의 편재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권력에 대하여 푸코는 선택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근대서구 권력의 어떤 특이성이 푸코의 비판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푸코는 근대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근대 권력의 특이한 구조를 지적한다. 중세 말 13세기 경부터 발달한 기존의 서구의 법적 권력의 핵심 장치인 재판소는 당시 왕들이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왕들은 봉건주의 하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던 귀족들간에 중재자(arbitrator)를 자처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재판소를 설치했다. 재판소는 삼자 관계로 이루어진 갈등을 재현하는 하나의 극장(theatre)이었다. 두 편의 갈등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이 무대에 등장하며 여기에 갈등의 외부 요인으로서 재판장,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한다. 이 재판장은 제삼자로서 공평성 또는 정의(justice)의 원칙에 근거하여 갈등을 종결지음으로써 잠재적 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역할과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17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권력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모든 말단의 현장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양자(兩者) 관계로서 일체의 외부 개입이 배제되어 원시적 권력의 상황, 지배-피지배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 권력의 현장은 재판장도 없고 관객도 없으며 따라서 위선적인 모습을 연출할 필요도 없는 원시적 현실일 따름이다. 푸코는 근대 권력의 이러한 원시적 구조에 근거하여 권력 일반에 대한 ‘분석학’(analytics)을 제시한다. 이러한 권력 관계는 권력이 제도화되고 상품화되기 이전의 상황이며 이 원시적 관계 자체에는 ‘정치’, ‘교육’, ‘경제’ 등 어떤 문명의 이름도 부여될 수 없다. 이러한 이름들은 권력관계가 전개되고 발전된 표면적 결과일 따름이다.

이러한 지배자와 피지배자간 양자 대립의 원시적 구조와 이 안에서의 지배자의 위치는 외부의 복잡한 장치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밀봉된 장소에서의 원시적 대립에서 지배자의 계속적인 승리와 권력은 양자 관계 외부에 있는 복

잡한 장치들에 의하여 확보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권력은 지배자에 의하여 철저히 독점되며 전적으로 폭력은 그의 자의적(恣意的) 판단에 의해 행사된다. 따라서 근대 권력은 공공적 정의(正義)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내부의 처벌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정상(normality)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이러한 권력이 적용되는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는 훈련이나 교육의 진전을 위해 임의로 폭력이 행사된다. 또한 권력은 피지배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그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권력의 소재를 확인시키기 위해 시험(examination) 등의 과정을 통해 권력의 의식(ritual)들을 반복시킨다. 물론 근대 권력에서 행해지는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인격 모독 등 다양한 양태를 포함한다. 푸코는 실제로 권력의 모든 미시적 현장에서 저항해야 한다는 실천적 입장을 천명했고 많은 경우 권력체의 개혁을 위한 시위 등 각종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푸코에게 폭력은 결코 근대 권력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평상시에 폭력은 늘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권력 과정은 교묘한 언어와 싸인(sign)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모든 기제들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된다. 푸코는 권력에 대한 토론의 많은 부분에서 폭력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교묘한 지능(知能)의 작용, 전술, 전략에 대하여 섬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권력의 사악함을 고발한다. 그는 판옵티콘(panopticon)을 논하면서 공간 구성과 시선의 배를 통해 폭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벤담(Bentham)의 천재성에 경탄에 마지 않으며 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권력의 출발을 디데로(Denis Diderot)의 소설『짓궂은 보석』(Les Bijoux indiscrets)에 비유하여 그 유치함과 비열함을 고발한다. 나아가서 성의 문제에 대하여 프로이트(Freud)의 심리분석(psychoanalysis)의 발달의 결과와 현대의 성의 담론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도 권력의 비폭력화 그리고 유혹이라는 새로운 과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전략적 변화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폭력의 본질을 숨기려는 권력의 교묘한 시도들을 더욱 가증스럽게 보여준다. 그가『감시와 처벌』의 첫 대목에서 구체제에서의 공개 처형이 근대의 감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도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함도 그의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다. 푸코는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해 추구되는 전쟁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통해 권력에서 폭력의 본질적 위치를 규정한다. 실제로 푸코는 일견 평화스러워 보이는 권력의 일상적 작동을 전술과 전략의 연장선에서, “전투는 계속된다”는 말로 폭력적 본질을 확인한다.

푸코는 권력의 문제에 대하여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식의 사회과학, 특히 정

치학에서의 통상적인 질문을 ‘형이상학’으로 치부하며 거부한다. 그는 이러한 질문에는 결코 실증적으로 대답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의 시도는 결국 권력의 내부의 문제로 귀착되어 권력의 작용을 둘째 될 뿐이라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접근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권력의 양태와 작동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푸코의 권력 이론의 기본적인 문제는 그의 권력 이론이 이미 그 출발에서 권력을 인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작용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푸코의 권력에 대한 질문은 근대 물리학(physics)의 힘(force)에 대한 접근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물리학은 보편적 감각 확실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universal sense certainty)에 따라 힘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고 다만 물질에 비쳐진 힘의 그림자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 과학이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힘은 물리력, 물질에 적용된 힘의 결과, 즉 폭력뿐이었다. 푸코는 연구의 과학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과학의 모델에 따랐고 따라서 같은 운명으로 귀착되었다. 근대 물리학의 경우는 힘을 보편적 인간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에 따른 선택이었지만 푸코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근대 물리학이 이해하고 구사하는 힘이란 결국 물리력, 폭력이었듯이 마찬가지로 푸코가 관찰한 권력은 본질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즉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에 근거한 명령이었다. 그가 관찰한 권력의 지적인 측면도 결국 폭력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푸코의 이러한 시각은 그의 용어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인간의 몸이 권력의 작용에 의해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는 권력이 ‘침투한다(investir, invest)’라고 하여 흡사 기생충이 사람의 몸에 파고드는 과정으로 비유하였다. 말하자면 폭력은 푸코가 그의 권력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출발에서 이미 전제한 것이었고 따라서 폭력성은 푸코가 제시한 권력 비판의 핵심으로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우리는 푸코의 저항의 이론과 실천이 딜레마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푸코는 저항에 대하여 권력은 처음부터 기대하고 있으며 저항에 부딪치면 권력은 새로운 전술과 전략으로 저항을 흡수하여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권력은 자신의 폭력적 모습을 인도주의의 가면으로 다시 감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푸코 자신이 제시했던 권력의 모든 미시적 현장에서의 저항은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푸코가 제시한 모든 미시적 현장에서의 저항은 권력의 또 다른 변화, 자신의 모습을 더욱 숨기게 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푸코의 저작의 업적은 우리가 그동안 권력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들, 특히 ‘사랑’으로 이해했던 관계들의 권력의 본성을 드러내어 그의 운명을 재촉하는 행위였다. 그렇다면

그의 실천적 투쟁, 권력의 모든 말단에서의 저항은 결과적으로 그의 저술을 통한 행위와 모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우리는 과연 푸코가 비판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은 폭력이었던가에 대하여 회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푸코는 권력의 폭력적 본성과 비폭력적 모습을 모두 비판했다는 모순에 처하게 되며 우리는 다시 혼돈에 빠진다.

다음으로 푸코는 근대 권력의 특징으로 그의 목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도 비판적 자세를 취한다. 근대 권력의 궁극적 목적은 전통적 법적 권력, 즉 왕권의 경우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공제(prélèvement)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권력, 즉 인간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는 ‘생산적 권력’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규율 권력은 초기부터 강한 군인을 만들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다시 공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었고 나아가서 감옥에서는 범죄자를 생산자와 시민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또한 성에 대한 권력에 대하여도 초기부터 목적은 부르주아들이 그들 계급의 주요한 자산인 신체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즉 근대 권력은 인간을 의도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바꾸어가는 폭력을 적용한 기술(technology)이며 어떤 경우에는 용맹스런 군인으로, 합리적 부르주아로, 부지런한 노동자로,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바로 그러한 목적과 결과의 의미로 인하여 18세기 말에 이르러 새로운 진보(progress, progrès, Fortschritt)와 문명(civilisation)의 영감(靈感)이 되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권력은 생명을 죽이는 권력, 죽일 줄 밖에 모르는 권력보다 좋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권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목적을 가진 권력은 특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즉 서구인들의 삶은 근대에 이르러서 스스로 사는 삶이라기보다는 살도록, 맹렬히 살도록 끊임없이 강요당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가 보여주는 근대 권력의 목적 역시 그 자체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위의 문제에서 도출되는 푸코의 비판의 또 하나의 차원은 그가 규율 권력과 연관되어 지적한 판옵티시즘(panopticism)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인들은 권력의 감시의 시선에 복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시 구조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근대 이전의 법적 권력은 정의의 원칙을 통해 정해진 방법과 양의 폭력을 제한된 시간 내에 행사하면 권력의 작동은 끝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 권력은 인간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복속시키고 관찰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근대 서구인의 이력서(履歷書)는 여러 형태의 규율 기관들에서 겪

은 빈틈없는 긴 시간의 연속을 나열하며 이를 통해 그의 정상성(normality)를 증명한다. 서구인들은 권력에의 끝없는 복속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다. 더구나 푸코가 여기에서 문제삼는 것은 길들여진 몸을 넘어 그 몸에 갖혀있는 특이한 형태의 ‘근대의 영혼’(the modern soul), ‘작은 영혼’이었다. 근대 권력은 인간에게 독특한 영혼을 여러 과정을 통해 즉 고백, 관찰 등을 통해 만들어가며 이 ‘영혼’이란 자신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의식하고 ‘알아서 기는’ 기본적으로 ‘영혼’이라 할 것도 없는 몸에 각인되어 있는 기회주의적 의도에 불과한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강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서구인들에게 결국 자신의 정체와 진리를 찾는 길은 죽음뿐이라는 것이다. 근대서구의 의학, 철학 및 모든 사상에서 삶, 생명은 죽음의 반대향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이며 삶에는 어떤 적극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서구인들에게 자신의 삶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개인들의 사적(私的)인 영역은 죽음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푸코는 19세기 말부터 뒤르카임(Emile Durkheim)에 의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제시된 자살(自殺)은 서구인들의 권력에 대한 유일한 저항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음의 푸코의 근대 권력 비판은 권력이 자기 유지와 팽창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은 여러가지 전술과 전략을 창조적으로 구사해 가며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고 사회 곳곳에 교묘히 파고든다. 푸코는 근대에 감옥에서 죄수들을 교화시키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게 되는 이유와 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자위행위(onanism)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이비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 등을 지적하며 권력이 내세워 왔던 명분들은 결코 순수하다고 이해할 수 없으며 다만 권력이 스스로 팽창하려는 권력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푸코가 부모-자식 관계 등 여타 사회 관계를 권력으로 착색하여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 정당화된다. 서구인들은 변태적 행위에 탐닉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의 학생, 종업원, 환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비밀스런 공간을 염탐하고 그들의 비정상을 발견하고 사랑을 구실로 억압과 각종 폭력을 가하며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성을 대상으로 과학(science)을 만든 것 자체가 근대 서구문명의 변태적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푸코의 권력이론의 비주체적 성격은 큰 의미를 갖는다. 권력의 확대와 변신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은 ‘사회 개혁’, ‘건강’ 등을 명분으로 권력의 새로운 전술, 전략을 노골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모든 사람들은 여러 권력 관계에 여러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 주체가 주동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자기 유지와 팽창의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푸코가 생명체의 유비(analogy)를 사용하고 있지만 권력은 생명에 해당하는 체계를 내부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푸코가 책임져야 할 수사(修辭)를 통한 신비화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서구인들의 일반적 심리 상태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다시 권력의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푸코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근대 권력에서 감시의 시선(視線, gaze, regard)이 등장한 이래 권력은 여러 미세한 권력 현장들을 거대한 그물망으로 조직해내어 스스로 팽창하고 계발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문제는 권력의 시선이 수행하는 또하나의 기능 즉 인간에 대한 지식 생산의 문제와 함께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권력의 자기 팽창의 문제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점들은 종래의 정치 권력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제기되어 왔던 것이며 따라서 푸코의 독창적 업적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II.

푸코는 근대 권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근대 서구의 지식 즉 학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 문제 의식은 푸코가 이미 초기 저작부터 정신병리학과 인간 과학(sciences humaines)에 대한 논의에서 명백히 하고 있으며 권력을 논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강된다. 그의 지식과 근대 이성에 대한 비판은 권력 비판보다 선행되어 있다.

인간에 대한 과학은 서구 사상사에서 이성과 지식의 등장과 자연스레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966년 『말과 사물』에서 인간 과학을 포함한 ‘인류학’(anthropology)¹⁾은 18세기 말에 이루어진 서구 지식의 에피스테메(épistémè)의 거대한 변화에서 나타난 언어, 생명 그리고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 체계의 사이에서 나타난 실증성이 결여된 학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인류학은 ‘인간이란 무엇인

1) 여기에서 anthropolog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인류학이 아니다. 그는 후자의 경우는 ethnography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

가?'라는 칸트(Immanuel Kant)의 네번째 질문에서 유래된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서구의 지식의 장에서 '인간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인간 과학은 곧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인간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논의는 18세기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다. 17, 18세기의 대부분의 정치철학가들은 인간 본성 또는 자연 상태 등을 나름대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민사회와 정치권력의 문제들을 논하였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실증적 과학적 연구는 19세기에 들어 비로소 나타난 것이었다. 물론 푸코의 비판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것 이었지만 특히 심리학의 여러 분야들을 비판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푸코는 70년대 중반 권력 이론을 제시하며 인간 과학에 대하여 새로운 입장장을 밝혔다. 1975년과 1976년의 『감시와 처벌』과 『성의 역사』에서 푸코는 새로운 권력론과 함께 인간과학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역사를 제시하였고 이제는 '인간은 곧 사라질 것이다'라는 초기의 예언은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인간 과학, 범죄학을 포함한 심리학 계열과 의학과 연관된 인간에 대한 학문이 우연히 나타난, 현실 또는 실증성(positivity)에 기반하지 않은 학문이 아니라 서구에서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에 서구 사회와 국가권력 내에 정착한 새로운 권력 기술 즉 현실과 실천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학문들은 순수하게 학문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 인간을 조작하는 '작은 재주'에서 유래되어 권력의 장치(apparatus)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한 'know-how'들은 발전을 거듭하여 18세기에 이르면 정치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의학 등의 공공 담론(discourse), 고급 담론의 표면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푸코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진보(進步)의 사상은 이러한 새로운 권력의 혁혁한 성과에서 그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철학, 정치학 및 각종 사회에 대한 고급 담론들은 이 권력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전술과 전략이 토론을 통해 수립되고 발전되는 장(場)이 되었고 또한 이러한 담론들은 여러가지 변형된 권력들을 상호 조절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푸코는 이와같은 담론의 다가성(polyvalence)을 강조한다.

푸코는 심리학을 포함한 현대의 인문·사회과학을 포괄적으로 비판한다. 실제로 어떤 과학적 지식이 인간을 폭력을 통해 조작하는 사악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의 폭로 자체는 이미 강한 비판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많은 곳에서 푸코는 이러한 학문들이 과학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발전 방향은 권력의 이해(利害) 즉 권력이 스스로 존속하고 확대하려는 전술·전략의 문제에 의존되어 왔다고 비판

함으로써 과학적 기준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푸코가 생각하는 과학적 기준이란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의 기준이라 보여진다.²⁾ 이는 푸코가 권력을 분석하며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형이상학적 질문을 거부하며 권력의 작동 원리와 양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말하자면 푸코는 적확한 과학적 지식은 가능하며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지식에 관한 한 결코 허무주의자(nihilist)가 아니다.

푸코의 이러한 인문·사회과학 비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푸코로부터 받은 영감에 의해 우리는 그 외의 많은 학문들도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학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시녀임이 널리 비판되어 왔고, 경영학은 자본의 하수인이며,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은 또 하나의 지식과 권력의 결합 형태인 지식국가의 도구이자 제도로 발전해 왔다.³⁾ 또한 인류학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철학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할 원흉임에 분명하다. 그 외에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들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며 공학은 자본의 도구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대에 거의 모든 학문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권력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존속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문들은 모두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주의, 근대국가 등의 여러 권력의 형태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왔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나아가서 푸코는 근대의 인간에 대한 관찰을 통한 지식을 구조적으로 비판하며 이는 그의 초기와 후기 저작들을 통해 일관된 입장임이 뚜렷하다. 근대 18세기부터 나타나 19세기에 정립된 인간에 대한 과학은 실제 인간을 보고 있지 못하고 또한 인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늘 인간들을 보며 경험하고 살고 있으며 그렇게 보면 인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란 독특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푸코의 초기부터 일관된 논지는 인간 과학의 중심적인 분야들은 한계 상황들에 처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고 ‘인간의 진리’를 찾아 왔다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오며 수용소에 감금된 빈민들, 불구자들 그리고 광인들을 바라보며, 병원에서 환자와 시체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바라보면 근대의 인간

2) Foucault는 여러 저서에서 많은 과학 분야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논하였지만 수학, 물리학, 화학은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 즉 이 학문들은 그가 비판하지 못했다.

3) 지식국가라는 개념은 Foucault의 용어가 아니며 필자가 다른 글에서 만든 개념임을 밝힌다.

과학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학은 극도의 굶주림에 처한 인간을 발견하고 그를 관찰한 모습에 근거하며 근대 의학은 병리 해부(pathological anatomy)로 죽은 인간의 몸을 잘라내어 관찰하며 그를 통해 살아있는 인간의 몸 안의 모습을 상상하며 관찰하는 행위로 성립되었다. 나아가서 푸코가 후기에 지적한 인간 과학의 실험실로서의 판옵티콘(panopticon)은 감옥에 갇쳐 폭력의 공포에 번민하는 인간을 관찰하고 있다. 죄수들은 인간으로서 관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좁은 감방에서 자신을 늘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감시탑을 향하여 모범수의 연기(演技)를 펼치며 감방을 작은 극장(theatre)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감시의 시선은 인간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을 갖게 되며 이는 ‘범죄성’(criminality)이라는 대상체를 발명해낸다. 나아가서 판옵티콘은 감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감시와 관찰의 시선의 도식(diagram)이었다. 말하자면 근대의 인간 과학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정한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근대의 인간에 대한 시선은 인간을 전체로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넣고 특정한 측면을 바라보며 이러한 절대 시선들은 다시 여러 수준에서 인간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여러 하위의 시선들의 그물망을 조직하고 있다.⁴⁾ 근대 인간 과학의 시선은 모두 그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모습에 대한 피동적 관찰(passive observation)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간을 특정한 한계 상황에 몰아 넣어 관찰한 것이며 따라서 과학 철학의 원칙에 따르면 정당한 관찰이 아니다. 결국 근대 과학의 시선은 처음부터 지식을 얻기 위한 관찰이 아니라 권력의 감시의 시선에서 바라본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진리’로 상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근대서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규율권력과 생체권력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의 이러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을 여러 조각들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인간 과학들은 독특한 종류의 인간들을 재창조하여 보여주며 이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앞에 세워진 일그러진 거울인 것이다.

이러한 근대 인간 과학을 비판하며 푸코는 그들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한 입장은 그는 과학의 모델을 갖고 있으며 그 모델은 주로 자연과학

4) ‘절대 시선’이라는 말은 Foucault가 사용한 일이 없다. 이 말은 필자가 다른 글에서 만든 말임을 밝힌다.

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물리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푸코가 그의 권력과 지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예리한 시각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 자연과학의 경우도 단적으로 모두 인간의 자연에 대한 힘(force)과 권력(power)을 위해 만들어진 지식 체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선 근대서구 이성을 창조한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경우 이러한 힘의 요소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의 분석(analysis)의 첫번째 단계는 대상체, 자연을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와 간단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었고 다음 단계는 그의 과학적 인식은 인간의 순수한 보편적 추상인 수학으로 포획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자연과학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물리학은 궁극적으로 힘과 에너지를 이해하고 장악하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근대 과학은 인간이 신의 속성인 ‘힘’을 획득하는 의미를 지닌 행위였다. 물론 이러한 자연과학의 기본적 문제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자연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하여 그를 파악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근대 과학이 이해하는 자연과 우주의 구성 원리로서의 힘을 이해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근대 과학은 보편적 감각 확실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인식 가능한 현상만이 정당한 지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힘의 문제에 있어서 과학은 힘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 매개된, 즉 힘이 물질을 변화시켰을 때 그 물질의 변화를 인식하여 힘을 추론한다. 즉 과학은 힘을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비쳐진 그림자를 바라볼 따름이며 따라서 힘의 본질을 알 수 없고 물질의 움직임을 힘과 동일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대 과학은 힘에 대하여 그의 본질을 물을 수 없고, ‘Why question’을 던질 수 없고 다만 그의 움직임과 양태만을 추적하는 ‘How question’만을 던질 수 있을 따름이다. 근대 과학이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은 물리력뿐이다. 근대 과학은 만유인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측정할 뿐이며, 전기력은 전자라는 물체의 움직임이며 이러한 물질을 통한 추론은 다른 종류의 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자연과 우주에서 발견하고 정당한 권리로 자연과 인간 사회에 휘두르는 힘은 폭력일 뿐이다. 현대에 환경론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근대 과학이 인간과 자연에 행사하는 폭력성 문제는 근대 과학의 본질, 즉 보편성과 근원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만약 푸코가 근대 과학의 본질적 폭력성을 이해했더라면 자연과학 모델에 비추어 인간 과학의 비과학적 성격을 비판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현실적으로 푸코는 인간 과학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고 이를 연장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과학이 진정으로 자연과학의 논리를 충실히 따라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 과학은 특유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방법론들, 예를 들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해석학(hermeneutics)을 개발해 왔다. 만약 모든 인문·사회 과학이 이러한 비과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충실히 과학 방법론을 사용하며 자연과학의 모델을 더욱 충실히 따라갔더라면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넌센스의 에피소드들, 예를 들어 자위행위(onanism) 금지 등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자연과학과 가까운 인간과학은 그가 봉사하고 있는 권력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지식의 여러 형태 중에 가장 자연과학적인 것은 경제학과 사회학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계(statistics)일 것이다. 통계로 인간을 관찰하는 경우 이는 인간을 먼 거리에서 본 모습이며 따라서 통계는 인간의 대규모 집단을 조망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또한 통계는 그냥 눈으로 관찰한 모습의 기록이 아니라 추상적 이론을 이루는 개념(concept)들을 중심으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그에 따라 자료(data)를 수집하여 기계적으로 재구성한 지식으로서 삶의 현실과 이론의 중간쯤에 위치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는 푸코가 제시하는 근대 권력에 활용될 경우에는 권력의 거시적 효과의 피드백(feedback)을 위한 것이며 통계는 권력의 미시적 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은 아니다. 권력의 미시적 현장에 유용한 지식은 실제로는 인간을 조작하는 알짜한 'know-how'라든지 실제 인간 과학에서 많이 발달한 과학적 성격을 보장할 수 없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해석학의 기법들일 것이다. 통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이론적으로 제작한 가장 높은 망루에서 땅을 바라본 모습이며 여기에서 권력의 현장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분야는 주로 일탈(deviation)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망루의 감시의 시선은 일탈자의 수를 세고 그들의 추적과 재교육을 돋는다. 그러나 이 망루의 시선이 일탈자에게 직접 개입하려 한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일탈자들을 저격(狙擊)하는 일뿐일 것이다. 말하자면 과학적 지식이 권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특정한 분야로 제한된다. 물론 근대의 각종 경제·사회 통계들은 물론 학문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라 권력의 목적인 사회통제(social control)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푸코의 지식 비판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인간의 '알량한 지식' 또는 형식화시킬

수 있는 지식 또는 ‘잔머리 굴리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다. 그가 후기에 서구의 종알종알 ‘말하는 섹스’를 비난하며 서구의 잃어버린 주체를 되찾기 위해 침묵과 명상을 권유하는 대목에서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푸코에서도 많은 서양 철학자들의 경우와 같이 서양 밖으로, 예를 들어 동양으로 눈을 돌렸던 순간이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푸코의 의도인지도 몰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혜안’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일본에서 한 유명한 말을 들어보면 동양 문명은 그의 대안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푸코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니체(Nietzsche)의 경우는 명백하게 이러한 말들과 종교적 고난과 명상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경험적 과학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푸코의 지식 비판을 형식주의적 지식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다.

푸코가 인간의 지적인 행위의 모든 것을 비판했고 따라서 그의 비판에는 기준이 없다는 그에 대한 일반적 비판은 적어도 지식의 문제에 관한 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서구의 이성(理性) 즉 인간이 진리(truth)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대한 확신이 탄생한 이래 서구의 모든 체계화된 과학적 또는 비과학적 지식 즉 모든 학문들은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모른다. 그가 권력이 없는 사회란 망상이라고 권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어떤 종류의 권력을 위한 어떤 종류의 지식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이러한 불가피한 권력을 위한 지식이 만약 근대 자연과학의 형태를 떤다면 그 권력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욱 폭력적이 될 것이다. 과학의 이상(理想)은 수식으로 이루어진 이론들의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독자성에 근거할 뿐이며 근대 과학적 지식은 인간을 살리는 권력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근대의 과학적 지식은 자연을 파괴하여 상품을 만드는 일이나 사람을 죽이는 무기 만드는 일에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다시 권력이 불가피한 것이 인간 사회의 현실이라면 이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은 불가피한 것이며 따라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는 지식에 대한 불평의 대상은 되겠지만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III.

푸코의 지식과 권력의 비판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는 지식이나 권력의

어떤 특수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라던가 지식이나 권력의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쪽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부분, 거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식의 비판이 실천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회의적이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은 원래 태초부터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밝혀 지식 일반을 권력의 시녀로 낙인찍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입장도 아니다. 물론 그의 학문적 업적의 일차적인 부분은 권력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데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그는 명목론적으로 권력에 접근하여 권력 자체의 존재 또는 권력의 편재성을 비판할 수도 없으며 그의 접근방식의 문제와 권력의 기반적 성격으로 인하여 권력의 폭력적 성격도 비판의 핵심이 될 수 없다. 푸코가 제시하는 비판은 지식과 권력의 어떤 특정한 문제점이 아니라 근대서구의 지식과 권력의 독특한 방식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근대서구 문명의 전반적인 모습과 그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서구에서 권력과 지식의 결합은 감시의 시선(視線, gaze, regard)이 등장하며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발전되어 왔다. 권력은 감시의 시선을 통해 여러 미시적 현장들을 하나의 체계로 조직해 내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얻고 따라서 18세기를 통해 권력은 날로 팽창되어 왔다. 또한 시선을 통해 권력은 폭력 사용을 최소화하여 문명의 지위를 얻고 서구인들에게 권력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운명을 부과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시선의 발달로 권력은 일대일(一對一)의 미시적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나아가서 전지구적으로 입체화되며 지식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 말하자면 이 시선으로 인하여 근대서구에서 전쟁을 위해 인간의 생명의 힘을 극대화시키려는 일련의 노력들과 잔재주들은 체계화되고 스스로 팽창하는 속성을 지닌 ‘권력’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서구 사회의 모든 곳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을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선은 권력에 복속되어 있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들을 보았고 이 새로운 모습들은 ‘인간의 진리’를 밝혀주었다. 이 시선은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 목적을 위한, 다목적(多目的的)인 망루였고 이곳이 바로 권력과 지식이 만나는 장소였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의 모습들은 인간에 관한 한 움직일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공리(axiom)들을 성립시켰다. 18세기말에 시작된 새로운 지식체계의 등장은 이 다목적적 시선의 결과였다. 이 시선의 등장은 인간의 관찰하는 눈이 발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시선은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이나 눈금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시선의 등장은 공간의 입체적 재배열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러한 공간과

이 안에서의 감시와 관찰의 시선들은 근대의 지식과 권력을 모두 독특한 방향으로 결합시켜 갔고 이 전체적인 결합의 결과가 푸코가 비판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감시의 시선은 끊어 죽어가는 인간을 관찰하여 근대 경제학을 성립시키고 폭력의 위협에 복종하며 군사 훈련을 받는 인간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 폭력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간을 관찰하여 범죄학 및 심리학의 여러 분야들을 성립시켰다. 나아가서 이 시선은 은밀한 곳에서 인간의 죽음과 시체를 관찰하여 새로운 근대 의학을 성립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근대 과학들은 폭력적 상황의 인간, ‘진리의 인간’을 창조하고 나아가서 죽음을 인간의 최후의 진리로 그리고 삶의 진리는 죽음으로 한발한발 다가가는 과정으로 재정립시켰다. 물론 이러한 관념은 인간 과학에만 한정된 것 이 아니라 근대서구의 철학 사상 그리고 각종 예술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

근대 의학이 건강(健康)에 대한 철학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듯이 근대 서양 철학에는 인생이 죽음으로 다가 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의 철학에 ‘인생론’은 염세주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삶의 의미는 ‘비합리적’이라 정의된 종교에 의해 부여될 따름이다. 근대 권력은 삶에 대한 욕망과 의지 그리고 더욱 맹렬한 삶을 강요하였고 이 권력의 끊임없는 작용은 서구인들에게 엄청난 흔적을 남겼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의 끝없는 감시와 처벌은 서구인들에게 ‘영혼’, ‘근대의 영혼’, ‘작은 영혼’을 만들어 주었다. 권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근대의 서구인들은 끝없는 욕망과 야망을 그들 자신의 영혼으로 착각하고 고유한 자신의 진리를 찾아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 근대의 이러한 새로운 인간형은 위반(transgression)으로 변증법의 철학을 대체했다. 서구의 에로티즘(eroticism, l'érotisme)에 탐닉된 인간들은 끝없는 욕망과 짜릿함을 맛보기 위한 광적인 행위들에 중독되어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결과없는 모든 규범을 파괴하는 일로 끝날 뿐이다. 이미 푸코는 그의 초기 저작에서 18세기 말에 나타난 새디즘(sadism)을 포함한 새로운 비이성(非理性, déraison)이 17세기에 정립된 근대 이성의 자기 분열이었으며 서구 문명의 깊숙한 곳에 그의 창조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음을 지적하였다. 인간에 대한 근대의 지식과 권력의 독특한 결합은 영혼없는 권력에 복종하는 ‘합리적’ 서양 인을 만들었고 죽음에서 진리를 찾는 이들은 비합리적 야만인이 되었다.

이러한 서구인과 서구 문화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들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구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전면전과 총력전이 전개된 것은 전쟁이 왕들의 이해 관

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치루어져 왔기 때문이며 급기야는 생명력 확대의 꿈은 핵무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생명력을 팽창시키려는 근대 권력의 명분이자 그 결과였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푸코는 20세기에 이르러 파시즘과 나치의 등장을 근대 권력의 팽창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권력과 전통적인 법적 권력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 서구인들의 종말적 사고 방식과 행위들은 사회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고가며 현대의 복지국가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일차적으로 비판적 저술 활동을 통해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시도하려했다. 더욱이 그는 모든 권력의 현장에서 저항의 행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푸코는 그의 권력에 대한 저술을 일단락지은 후 마지막으로 이른바 주체성(subjectivity)의 ‘재문제화’(reproblématisation)를 주장하였다. 서구인들의 주체는 권력에 의해 종알종알 고백(confession)하기, 권력 앞에서 연기(演技)하기를 통해 만들어져 온, 말하자면 권력이 강요를 통해 만든 것이지 그들 스스로 만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구 철학에는 주체의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문명의 주체는 근대민족국가 또는 자본주의 사회전체를 명분으로, 계속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력이 자의로 모든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막연한 관념일 뿐이다. 푸코는 이제 서구인들은 각자 자신 안에서 명상 등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는 주체 형성에 대하여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의 뒷으로 남겨진 셈이다.

그러나 푸코가 제시한 침묵과 명상을 통한 주체 만들기로 서구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니체가 제시했던 자신을 극복하는 초인(Ubermensch)의 철학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대권력이 엄청난 규모로 오늘에도 작동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항하는 주체를 찾는 행위와 주체의 철학에 대해 권력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듯이 주체 형성에 대하여 하버마스(Habermas) 같은 학자들은 소통 행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푸코의 경우 언어를 불신하며 하버마스와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그 가능성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과 전쟁 기계로부터의 탈주를 위한 들뢰즈(Gilles Deleuze) 식의 노마돌로지(nomadology)도 푸코는 또 하나의 서구의 비이성으로 찬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푸코도 불가피성을 인정했던 권력의 문제, 대안(代案) 권력의 문제로 보인다. 특히 문명의 영원한 문제인 교육에서 권력은 필수불가결이며 권력은 따라서 다시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서구의 권력은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였고 오히려 권력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말았다. 어쩌면 푸코가 근대서구 권력을 인간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폭력과 그의 변형으로 본 것은 근대서구의 권력의 특성상 타당한 접근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근대서구의 권력은 여러가지 가능한 종류들의 권력 중에 독특한 권력에 불과할지 모르며 이를 비판한 푸코의 철학도 서구문명의 내부에서 밖의 세상을 볼 수 밖에 없었던 제한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교육은 어느 문명이나 존재하듯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확대시키는 권력도 여러 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창조하는 새로운 종류의 권력과 지식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푸코가 거부했던 질문,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의 문제를 좀더 넓은 시각에서 다시 제기해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그리고 대안(代案) 철학에 대하여도 폭넓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 비서구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어쩌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더 잘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른다.